

통일 칼럼

북한의 로봇경기대회

최 근 북한에서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참가하는 '로봇경기대회'가 열렸다. 정해진 시간 안에 로봇을 조립해 조종하는 실력을 겨뤘다. 이 밖에도 북한은 과학기술 정책을 강조하며 다양한 분야의 과학기술 전시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있다. 하얀 색 테이블 위, 학생들이 노랗고 빨간 블록을 다양한 모양으로 조립하느라 여념이 없다. 평양에서 열린 로봇경기대회에는 북한 각지에서 선발된 학생들이 참가했는데,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제한시간 내 로봇을 조립·제작한 다음,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를 평가받았다고 한다. 실생활과 밀접한 과학기술을 공유하기 위한 '과학기술 및 제품 전시회'도 열렸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스마트 TV와 아동 학습 교육 프로그램들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북한 내 수백 개의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참가해 1,600여 점의 제품을 출품했다고 한다. 다기능화 된 전자제품을 개발해서 날로 높아지는 인



정복규
논설위원

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다. 농업부문에서도 과학기술 경험을 공유하고 연구 성과를 선전하는 전시회가 열렸다. 식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알곡 생산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우량품종의 벼 종자와 벼 영양제들이 대거 출품됐고, 선진적인 재배 방법이 소개됐다. 우수한 품질의 채소, 과일도 선보였다. 김정은 집권 이후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정책에 더욱 힘을 주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23년 체계적으로 과학자와 기술자를 양성하고 이들의 생활조건 등을 보장하기 위해 '과학기술인재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북한이 최근 새로 준공한 학교 모습을 공개하면서, '교육용 로봇'이 교육 현장에 보급된 걸 선전했다. 대북 제재로 첨단 장비 수입이 제한적이긴 한데, 북한의 AI 기술이 고도화된 분야도 있다는 보고서도 공개됐다. 최근 평양에 준공된 통합병설학교, 진전고급중학교가 준공됐다. 유치원부터 초·중·고까지 함께 운영하는 시설로, 북한 매체들은 최근 준공식 소식을 전하며 내부 모습도 공개했다. 깔끔한 체육시설과 스투디오, 또 각종 과학 장비가 놓인 실습실이 눈에 띈다. 특히 어린 학생이 '교육용 로봇'과 대화하는 듯한 사진도 공개

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북한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통합 일기예보 체계를 개발했다고 발표하는 등, 'AI 선진'에도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실제 북한이 첨단장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환경에서도, AI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보고서도 공개됐다. 북한은 AI 분야 중에서도 인공 인식과 음성 식별, 합성 기술 등을 고도화한 것으로 평가했다. 제한된 연산과 데이터 환경에서, 경량화 구조 설계 등을 통해 인식 정확도와 처리 속도를 동시에 높였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러한 북한의 AI 개발이 민간 영역은 물론, 체제 감시나 국제적 사기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암호자산 탈취 그리고 자금 세탁, 혹은 위장 신원을 생성하는 등의 이런 모든 과정에서 속도 그리고 규모가 아주 비약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북러와 북중 간 기술과 인적 협력을 핵심 변수로 평가하며, AI 관련 기술의 군사·사이버 전용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독자제언

병오년, 가정폭력 없는 사회를 꿈꾸며

2026년 병오년이 다가왔다. 한 조사에 의하면 가족 내 구성원 절반 이상이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범죄는 폭행, 체포·감금, 상해 등 신체·정신적 피해를 수반한다. 여성의 경우 51.3%가 가정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경험했으며,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30.1%에 달했고 이들 피해 여성 중 69.6%는 남편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할 때 공포를 느꼈다고 한다. 남성의 경우는 가정폭력으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가 3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20.6%는 아내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할 때 공포를 느꼈다고 한다. 이렇게 부부 간에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제2차 피해자는 자녀가 된다. 관한 스트레스로 인해 자녀에게 손을 휘두르는 것이다. 18세 미만 자녀를 둔 1,523개 가구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자녀학대 발생률이 절반을 훌쩍 넘는 59.1%에 달했으며 폭력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이 52.1%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폭력 29.2%, 방임 17% 등

으로 조사되어 자녀에 대한 학대도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가정폭력이나 자녀학대를 한 사람들의 70% 이상이 자신의 행위가 가정폭력 관련법 위반으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는데, 부모 간의 싸움은 부모 두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부모 간의 싸움은 어렸을 때부터 지켜 본 자녀들에게도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가정폭력 없는 사회를 꿈꾸는 경찰관으로서, 가족 간 이해가 있다면 대화로서 풀어나가는 지혜를 발휘해 보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화가 난다고 무자정 폭력을 사용하면 나중에 돌아오는 건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와 절망뿐이다. 얼얼해진 물을 주워담을 수 없듯이, 흘러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가족이란 부부와 같이 혼인으로 맺어지거나, 부모·자식과 같이 혈연으로 이루어지는 집단 또는 그 구성원임을 다시 한 번 가슴 속에 새겼으면 한다. 이진제 안산경찰서 화산지구대 경위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골든'으로 주제가상, 수상 소감 말하는 이재



이재(EJAE)와 미크 소넨블릭이 4일(현지 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신타모니카의 버커 행사에서 열린 제3회 크리티스 초이스 어워즈에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주제가 '골든'으로 주제가상을 받은 후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설

한국 개인투자자 23조 올인

한국의 개인투자자가 미국에 상장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23조원어치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규모와 비중 면에서 미국과 국제 투자자 중 압도적 1위다. 국내 개인들의 보유 규모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주식형 레버리지 ETF 전체 순자산(약 1100억달러)의 14.2%에 해당한다. 국내 개인들의 미국 레버리지 ETF 투자 금액은 최근 5년 새 26배 급증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고환율·고물가로 '벼락거지' 공포가 커지자 설계 등을 통해 인식 정확도와 처리 속도를 동시에 높였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러한 북한의 AI 개발이 민간 영역은 물론, 체제 감시나 국제적 사기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암호자산 탈취 그리고 자금 세탁, 혹은 위장 신원을 생성하는 등의 이런 모든 과정에서 속도 그리고 규모가 아주 비약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북러와 북중 간 기술과 인적 협력을 핵심 변수로 평가하며, AI 관련 기술의 군사·사이버 전용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최근에는 자산 가치 급등과 고물가의 불안 속에서 선택·전술적으로 투자하는 '점투개미'로 거듭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위험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것은 노후 대비와 내 집 마련을 위해서라는 게 서학개미의 대체적 의견이다. 해외 고위험 상품 투자가 단순히 일시적 유행에 따른 투자 트렌드라기보다 자산 가격 급등에 따른 불안과 높아진 기대수익률이 맞물린 결과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험 상품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개인이 많아져서다. 당국은 우선 해외 레버리지 ETF를 신규로 거래하려는 일반 개인투자자는 1시간의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만 주문이 가능하도록 했다. 규제 대신 현실적인 대체 투자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상형 한글체 창시자' 김두경 선생

아해(我河) 김두경 선생(1959년생)은 한글의 조형미를 살린 '상형 한글체'의 창시자, 선비정신이 충만한 서예가로 꼽힌다. 그는 한글의 영역을 넓혀 세계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는 어린 시절 서당을 하던 아버지 덕분에 자연스럽게 서예를 접하고 평생 서예가로 살아왔다. 부산에서 타고 자랐다. 그동안 한글의 형상화에 집중했고, 이제는 틀을 잡았다. 그는 '한글은 디자인적 요소가 강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한글의 조형미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2008년 상형한글을 완성하고 서울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한류(韓流)'가 세계로 번지던 시절이었다. 그는 컴퓨터와 결합해 온라인 서예를 연구하고 있다. 글자에 사물이나 형상, 자개를 의

우는 것도 같은 일환이다. 서예와 사진, 컴퓨터그래픽을 결합한 새로운 서예작품을 추구하고 있다. 이른바 트리니티 아트(Trinity-Art). 온라인을 통해 발전시켜 나가고, 장기적으로 문화 상품화 하는 길을 찾고 있다. 그는 시류에 흔들리지 않는 서예가로 꼽힌다. 2000년부터 '까마'라는 서예 잡지를 발행하면서 서예계의 문제들을 지적했다. 그는 지금 정음시 산내면 청정로 1694번지 '우리누리'에 터를 두고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누리'는 선비문화체험관이다. 고등학교를 전주로 유학하면서 아산 송하영 선생으로부터 서예를 배웠다. 아산은 그의 친외삼촌이다. 외할아버지의 동생이 되는 강양 송성용 선생 댁을 오가면서 서예가로서의 꿈을 키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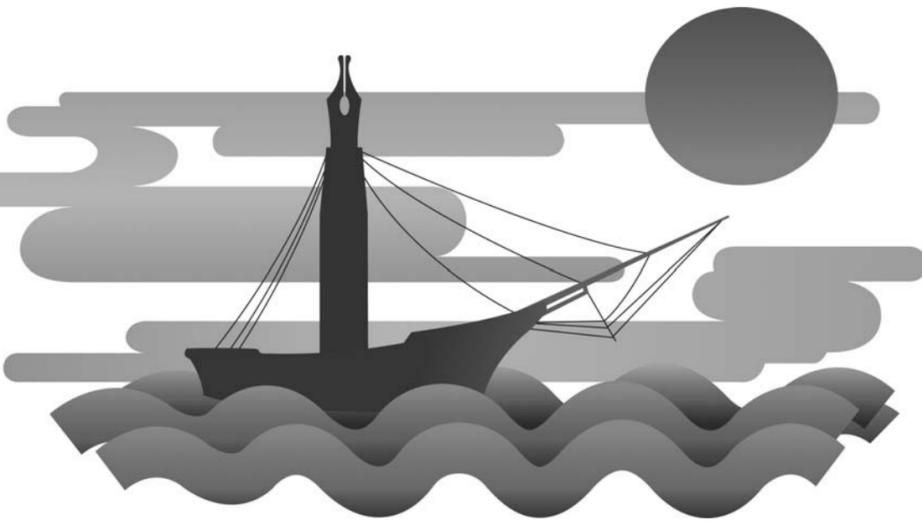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